

## 2022년 제20차 파종회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주연) 주최 “2022년 제20차 파종회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0월 22일 오전 11시 안동시 북면 좌윤공파(佐尹公派) 연원재사(燕院齋舍)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권계동, 권기덕, 권기호 전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3명을 비롯하여 권주연 협의회장, 권오돈 부회장, 15개 파종회장 및 부회장, 좌윤공파 임원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시조묘소 망배, 좌윤공파 파조 망배, 상음례, 회장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한 회장들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였다.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데도 불

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각 파종회장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파종회장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은 2년 동안 파종협의회를 위하여 수고한 권기호 전 파종회장협의회장과 권기원 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 대신 금일봉씩을 각각 전달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이 직접 쓴 667쪽짜리 ‘좌윤공파 사람들’이란 책 한 권과 송편 떡 한통, 타월 두 장씩을, 권주연 회장이 버버리 찰떡 한 통씩을 각각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각 파종회장과 부회장들은 연원재사 앞 정원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안동시 경동로 안동봉화축협 2층에 예약한 ‘북향’으로 이동했다. 북향에 도착한 참석자 전원은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권주연 회장, 권계동 고문, 권오신 회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를 하였다. 건배 제의가 끝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답을 나누면서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으며 식사비는 주최 측인 좌윤공파가 부담했다.

한편 이날 안동시 이천동 재비원 마애석불(보물 제115호)을 유적탐방 할 계획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취소하고 다음 기회에 탐방하기로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 검교공파 파조 추향제 및 정기총회



천자 권태혁 수석부회장, 축관 권영민 운영위원, 종현관 권영린 운영위원, 이현관 권종구 부회장, 초현관 권기식 파종손(원쪽부터)

아현관 권종구 부회장, 종현관 권영린 운영위원, 찬자 권태혁 수석부회장, 축관 권영민 운영위원으로 분정하였다. 음복례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권무탁 회장의 갑작스런 병원 입원으로 참석을 못하여 권태혁 수석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국민의례와 시조태사공께 맹배를 드리고, 권무탁 회장의 코로나와 태풍을 벼텨내시고 파보를 발간하는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새로 주대 받는 회장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권영호 총무부장이 대독하였다. 업무보고에서 단소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 주차장 포장공사를 권정택 상임부회장이 관청에 수차례 요청하여 외료하였다.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마치고 임원개선에 들어가 새로운 파종회 회장을 추대하기 위해 파친들이 많이 거주하는 5개 지역 문중대표들이 눈의 끝에 만장일치로, 현 권정택(權正澤) 상임부회장을 추대하고, 30여 년 동안 파종회의 일을 맡아

서 하였고, 사회적으로 역량이 탁월하여 파종회를 이끌어 가는데 최고의 적임자로 추대 동기를 설명하자 참석자들은 우례와 같은 박수로 모두가 동의하자 권정택 상임부회장은 수락인사로 전임 회장들께서 너무나 잘 하셨기에 책임이 무거우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감사 2명과 총무부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바. 권오수 감사는 유임하고 권오섭 감사를 새로 임명하였으며 권영호 총무부장은 유임했다.

권태혁 수석부회장은 권기식 파종손이 승종 이후 추향제는 처음이라고 참석자 여러분께 인사를시키고 파종손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리켜주고 이어서 주민에게 협력하여 파종손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온 파종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권무탁 회장께서 바쁜 일정을 뒤로 미루고 멀리서 오신 파친 여러분에게 직접 대접을 해야 함에도 부득이 한 사정으로 죄송하다며 100만원을 송금해 주시며 점심이라도 잘 대접해드리고 당부하여 연꽃한우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해산하였다.

총무부장 권영호

서 헤택을 누리며 안주하게 살아왔다”고 말문을 연 후 “지난 7월 7일 안동종친회장에 출마, 당선되었으며 재임 중 삼례사 주변을 성역화하고 안동 권씨 읍·면·동의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축친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 우연히 초청가수가 기타를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면서 여러 곡의 노래를 불렀다. 이어 정조공파 이정희 서무과장이 무대로 올라와서 “동백 야가씨”를 멋있게 부르자 양코르가 쏟아져 “수녀사의 여승”을 한곡 더 불러 장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권해옥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안동종친회, 정조공파 청·장년회에서 대형 화환을 보내와 경로잔치를 축하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간 고등어 한 통과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위하여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한 후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 권순복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5년 발족한 경로잔치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정조공파 남녀 대학생 총 600여 명에게 장학금만도 2억여 원을 지급하여 정조공파의 자랑”이라고 소개했다.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안동 권씨는 1천1백여 년 동안 역사 속에

## 화산부원군 추향제 봉행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177에서 추향제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향을 마친 일행은 계속해서 총회를 속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균 회장의 인사 말씀과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와 예산심의를 끝마쳤다. 이어서 임원선출에서는 권성옥씨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는 전임 감사가 연임하여 맡게 되었다.

권정택 전 행주서원 원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28)



중국 춘추시대 손무(孫武, ?~?, 齊나라 산동성 樂安人, 田完의 후예로 선조가 손씨 성을 하사받았다)의 ‘손자병법 손자兵法’ 「모공謀攻」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남과 부딪쳐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마치 적국(敵國)과의 전쟁에서 상대방(적)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나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최상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거나 평화롭게 선린우호(善隣友好)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실정을 알고 나의 실력을 안다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知彼知己 百戰不殆)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서 싸운다면 한 번 이기되 한번은 지게되며(不知彼知己 一勝一負) 적도 모르고 스스로도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이 수개월 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특히 인사·외교·안보와 정치·경제 등 현실 모습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받고 있는 상태가 여론 조사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북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 째 계속되고 있고, 동북아시아 중국과 대만·미국,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조선)·중국·러시아의 대결구조로 육·해·공군의 전쟁연습(?) 작전,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과 중국·일본(한자·유교문화권)의 사회정치적 연원(淵源)과 특징, 유학(儒學) 특히 정주(程朱) 성리학(性理學)이 이른바 ‘유교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는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 근대 이전의 왕조 시대에 ‘국가철학’ 내지 주된 사회정치사상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9세기 ‘서세동진(西勢東漸)’으로 인한 구미(歐美) 근대화 과정에서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로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그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해 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대개 서구제국주의자들 의해 그들의 동양 침략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려고 근거가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역사발전의 정체성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진한(秦漢) 시대(BC.221~AD.220) 이후 청대(清代, 1636~1911)까지 수천년 간 같은 정치체제의 반복이고, 서구를 모방하여 당시 19세기 조선을 침략하며 ‘조선은 역사발전 단계는 (일본의) 중세(막부체제) 이전의 고대 노예제 시대 말기, 즉 일본의 역사로 대비하여 말하면 헤이안(平安) 시대 후기 정도, 더 구체적으로 후지와라(藤原) 시대 말기 와지들의 발호로 인한 일왕(천황)의 정치적 권한이 유망무실해지고, 이어 가마쿠라(鎌倉) 막부가 출현하는 11-12세기 말

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자가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 1874~1930)다. 이러한 주장이 일제시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사관’ 내지 현재까지 한국에서 ‘뉴라이트’ 등 우파 단체들의 이른바 ‘식민자근대화’론의 기본적인 시각의 원조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당시 지식인들의 그릇된 ‘근대화 지상주의’는 현재에도 ‘세계화 지상주의’라는 형태로 변형되었을 뿐 똑같이 그릇된 모습이다. 이어져온 전통문화들을 깅그리 미신이라고 무시하며 서양의 것(기독교 등)만을 쫓아 찬양했던 근대 초기와 6.25 이후 우리의 모습이나, 최근 세계화를 위해선 영어를 배워야 한다며 우리말도 못하는 유아에게 영어·노래(ABCD 알파벳)부터 흉내 내게 하고, ‘영어몰입교육’이나, 대학 강의에 한국의 철학·역사·어문학 등을 영어로 강의하면 가산점수? ‘영어를 상용어로 하는 영어마을 만들기’라고 훈동해선 크게 잘못된 일이다. 아직도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 가운데 우리의 전통사회를 한마디로 ‘가부장적 유교 봉건주의 사회’로 여성을 억압한 전근대적 사고에서 서구 근대화로 가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잘못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인 세계인식이 밀바탕에 깔려 있다. 서구와 일본의 전쟁한 근대화(제국주의)를 한마디로 ‘가부장적 유교 봉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

더구나 친일파국노와 그 후예들 및 개화파의 일부 세력들은 이후 서구화, 조국근대화, 국제화 세계화가 1백 수십 여년 간 진행되어 그걸림돌과 죄는 전통사상과 유교가 짙어져야 할 천형(天刑)으로 매도하였다.

우리도 서양·일본의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 정복하여 수탈 착취하며 학살고문을 자행한 것도 묵인용서하며 동맹결속만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면, 우리 미래의 선진 민주국가의 비전은 ‘봄날 꺼꿈이 될 것’이다.

구한말과 일제시기, 이어져서 박정희의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한 5.16 쿠데타와 조국근대화 유신독재시기까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조국 근대화’한다는 것은 일본식 서구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우리는 4천여 년 동안 사용했던 전통사상과 문화·예술 등 민족들을 일시에 이 나라에서는 용도폐기 된 쓰레기 취급과 한신짜처럼 내팽개치는 오류를 범했다. 현재 우리에게 실학의 올바른 정신인 ‘실사구시(實事求是)’나 전통의 사상과 문화의 비판계승(은고지신溫故知新; 병교장신法古創新)은 바로 서구의 근대화 밀거름이 되었던 르네상스의(Renaissance) 정신과 같은 것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고 인간성 해방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진실은 실종되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한 자들은 이제 그 총체적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 2022 부호장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순복)는 파조의 어덟 번째 추향제를 10월 8일(음력 9월 13일) 한로(寒露) 날 오후 1시 안동시 아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參祭員)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奉行)하였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예년 같으면 70~8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참석할 참제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역대 회장을 역임한 권병균, 권오정, 권영건 고문을 비롯하여 원로, 종원들이 참석하였다.

700여 년 만에 파조 고유제를 봉행한 이후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다. 이날은 24절기 가운데 열 일곱 번째 절기인 한로는 차기운 이슬이 내리는 날이지만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춥지도 덥지도 않았으며 바람이 다소 불었다.

분정(分定)은 권기영 제례위원이 맡아 글을 쓰고 초현관 권순주(權純宙, 부호장공파종회장), 아현관 권오석(權五錫), 종현관 권현종(權憲宗), 축관 권영문(權寧文), 집례 권기영(權奇嶸)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700여 년 만에 파조 고유제를 봉행한 이후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추향제를 봉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코로나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추향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현관들은 검정색 제복(祭服)으로 갈아입고 제례위원들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 참제원들은 평복(平服)에 유건을 쓰고 1시간가량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파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다했었다.

이날 권기영 집례가 어려운 한자로 된 흉기(笏記)로 제례순서를 낭독하면 권오중 제례위원장은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등 쉽게 제례를 치를 수 있었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순주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2년 동안 파조 추향제를 봉행하지 못하였다가 오늘 파조 추향제를 봉행하니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 고문 3명과 파내(派內) 6개 소 문중, 개인 등이 제수비(祭需費)로 모두 270만원을 시도소(時到所)에 냈다.

추향제가 끝나자 참제원 전원은 경기장에 참석한 후에 회장을 향해 “권기영 집례위원이 맡아 글을 쓰고 초현관 권순주(權純宙, 부호장공파종회장), 아현관 권오석(權五錫), 종현관 권현종(權憲宗), 축관 권영문(權寧文), 집례 권기영(權奇嶸)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권순주 회장은 내년도 추향제 때 도유사로 선임된 권오석 아현관에게 권기영 제례위원이 쓴 망기(望記)를 전달했다.

보도부장 권영건